

부모의 애정과 감독 및 비밀관적 양육행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 은 경¹⁾

이화사회과학원

한 세 영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이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양육행동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주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중 초1과 중1 패널의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2,119명과 고등학교 1학년 2,10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부모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과 감독을 높게 지각한 경우, 공격성과 신체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은 애정적인 양육과 감독을 높게 지각한 경우, 공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부모의 비밀관적인 양육과 감독을 높게 지각한 경우, 공격성이 낮게 나타난 반면,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애정, 감독, 비밀관성이 각각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에 미치는 주효과를 밝혔을 뿐 아니라 각 양육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주효과와 다른 방향으로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애정, 감독, 비밀관적 양육, 정서문제

*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발표를 보완한 것임.

1) 주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evenhow@ewha.ac.kr)

I. 서 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발달은 다차원적이고 점진적인 변형(transformation)과 변환(metamorphosis)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Geldard & Geldard, 1999). 즉, 청소년기에 도달하게 되면 생물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아동으로서의 역할이 어울리지 않게 되고 다양한 역할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 기본적인 사회적, 직업적 정체감을 확립해나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성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혼돈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Shaffer & Katherine, 2013).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에 대한 압력으로 어린 시기부터 노출이 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입시경쟁에 놓이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2012 한국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모상현, 김형주, 이선영, 김정화, 윤경민, 2013)'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게임중독 정도를 점수로 매겼을 때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게임중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으로 점점 저연령화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김은주, 2015).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우울

등의 내면화된 정신건강 문제행동은 자학적 행동, 비행, 공격적 행동의 외현화된 형태의 문제들로 표출(Chiles, Miller, & Cox, 1980)되기도 하며,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20~30%가 문제 행동을 한다(조정아, 2009; Craighead, 1991).

이 때 청소년들이 이러한 위기로부터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많이 연구되어 오는 것이 바로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 공격적 행동과 비행행동이 나타나는가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통상적으로 지나친 통제로 발생하는 내면화 문제와 과소통제로 야기되는 외현화 문제로 구분된다. 내면화 문제에는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신체적 증상 등이 포함되며 외현화 문제에는 공격성과 비행과 같은 증상들이 포함된다(김진아, 한귀례, 2014; Achenbach, 1991). 이들 지표 중 내면화된 문제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자살 등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외현화 된 문제는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 될 수 있으며, 성인기에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Show, Gilliom, Ingoldsby & Nagin, 2003).

한편 최근에는 과거보다 빨라진 사춘기의 시작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춘기를 맞이한 학생들은 급격한 신체변화에 비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조기 사춘기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낮은 신체 만족감을 경험한다(곽금주, 문은영, 1993). 이 시기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학교

생활, 일상 행동, 가정생활 등 전체적인 불만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박광숙, 이영희, 고성희, 2012).

그렇다고 해서 과도기적인 청소년기를 지나 는 모든 아동이 불안이나 우울,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나 공격행동, 비행행동 같은 외현화 된 문제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보호요인으로 또는 위험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양육태도이다(이주리, 2010; Hibbard & Walton, 2014).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을 주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얼마만큼의 행동지침을 제공하는지에 의해 구분되는 부모의 태도를 의미하는데(한국심리학회, 2014), 일반적으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와 부모사이에서 안정적인 신뢰를 형성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행동문제를 낮추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으로 지각할 때, 우울의 수준이 낮았다(정은선, 조한익, 2007). 그리고 부모에게 애정을 많이 받은 집단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여 불안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행동도 덜 나타냈다(김정은, 박희현, 2011; Niditch & Varela, 2012). 이러한 내재화된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 자율적 민주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공격성 수준이 낮았다(신현숙, 박유미, 김선미, 2012).

부모의 감독 또한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부모 감

독이란 자녀의 효율적인 행동적 규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써, 자녀 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표현으로, 자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를 뜻한다(김도영, 2013; 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5; Kerr & Stattin, 2000).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비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청소년의 문제행동들과도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다(박정현, 이미숙, 2014; Bacchini, Miranda, & Affuso, 2011). 특히 부모의 감독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부모가 감독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문제 상황을 관리 및 통제하면 청소년이 건전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신재, 양혜원, 2007). 고정자(2005)는 감독적 부모양육이 청소년의 내재화 증상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박정현과 이미숙(2014)은 부모와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적절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감독의 긍정적 효과는 부모의 감독이 의도적인 질문이나 통제와 관련되기 보다는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것이며(Kerr & Stattin, 2000), 자녀들로 하여금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유발시킬 경우 내면적인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을 나타내거나 오히려 반발심에 의한 일탈행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하였다(나유미, 임연진, 2003). 특히 부모의 감독이 부적절하게 될 경우 자녀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부적절한 감독이 반복될 경우 자녀는 일탈행동을 하는 또래들과 같이 배회하게 됨으로써 결국 반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김희화, 2003; Reid & Patterson, 1989).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쉬우며 자녀의 정서문제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배성만, 2014) 특히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신체화증상과 매우 높은 관계가 있었다(신현균, 2002). 그리고 Gallagher와 Cartwright-Hatton (2008)의 연구에서는 비일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 사건으로 초점화하여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인지왜곡발달을 일으켜 자녀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로도 부모의 비일관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 2002).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가 훈육의 기준에 없으며 상황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을 대한다고 지각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지는 않았으며, 청소년의 정서문제와도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김진아, 한귀례, 2014).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지만, 부모의 감독과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 시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판단이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청소년 스스로 선택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도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김재엽, 정윤경, 2007). 따라서 실제 부모가 어떤 양육태도를 보이는가보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의 결정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이에 따라 그들의 정서문제가 받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정서문제를 단편적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양육태도가 항상 애정적이거나 감독수준이 높거나, 비일관적이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를 모두 고려함과 동시에 애정과 감독, 애정과 비일관성, 비일관성과 감독의 상호작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세 양육태도의 공존과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애정과 감독은 각각 애정철회나 죄책감 유발과 같은 부정적 양육의 측면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애정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발달이 감소하지만 애정과 심리적 통제가 함께 높을 경우 애정이 증가하더라도 아동의 부정적 발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unola & Nurmi, 2005). 이는 애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의 측면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부정적 양육의 측면과 함께 작용할 경우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서로 반대되는 측면의 양육이 동시에 발생할 때 그 효과가 어떠한지를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의 차이로 인해 그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인식하고 받아드리는 데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자녀의 정서문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애정, 감독, 비일관성)와 정서문제(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애정, 감독, 비일관성)와 정서문제(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두 집단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애정, 감독, 비일관성)가 정서문제(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초1 패널과 중1 패널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초1 패널과 중1 패널 4차년도를 활용한 이유는 아동후기로 넘어가는 초등

학교 4학년은 활동영역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시기로 부모나 교사, 사회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높은 성취를 기대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여러 정서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김수정, 2008). 또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해 무조건 동조하기 보다는 거부하고 반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특히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에 대해 지각하고 인식하는 양상과 정도는 청소년의 우울(강승희, 2010;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윤명숙, 이재경, 2010; Feinberg, Howe, Reiss, & Hetherington, 2000)이나 공격성(이웅택, 이은경, 2012; 장혜림, 정익중, 2013)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표본은 초등학교 4학년 2,342명과 고등학교 1학년 2,351명 중 설문지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4학년 2,119명(남자: 51.6%)과 고등학교 1학년 2,108명(남자: 51.0%)만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 고졸 37.7%, 대졸 35.3%, 어머니 고졸 43.9%, 대졸 2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 고졸 41.1%, 대졸 40.4%, 어머니 고졸 53.8, 대졸 30.9%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부모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4)의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부와 모 각각에 대한 문항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독(3문항), 애정(4문항), 비밀관성(3문항)의 하위요인의 총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절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지닌 정도(예: 부모님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를 나타내며,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 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예: 부모님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를 의미한다. '비밀관성'은 자녀에 대해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예: 부모님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치신다)로 정의된다(김진아, 한귀례, 2014).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Likert 방식으로 각 하위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아동과 청소년 각각, '애정'은 .84, .81, '감독'은 .72, .77, '비밀관성'은 .64, .68, 로 나타났다.

정서문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공격성, 주의집중, 신체증상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를,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에서 중복된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5개의 하위변인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6문항), 신체증상(8문항), 사회적 위축(5문항), 우울(10문항)의 29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공격성의 문항의 예로는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를, 신체증상의 문항의 예로는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의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를, 우울의 문항의 예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를 포함한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문제의 각각의 영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아동 청소년 각각 공격성 .82, .79, 신체증상 .84, .82, 사회적 위축 .86, .88, 우울 .90, .89이었다.

3. 자료수집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의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9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다단계확립표집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표본으로 추출된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들이 매년(2010~2017년까지 계획) 학교를 통해 자

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있는지를 상관관계와 Lenhard와 Lenhard (2014)¹⁾의 공식에 따라 Fisher의 *z* 값으로 변환시켜서 상관계수의 차이를 *z*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할 경우, 사후 검증을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Centering한 평균을 중심으로 ± 1 표준편차(상 하)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회귀식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차이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애정, 감독, 비밀

관성과 같은 부모양육행동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t = -21.12 \sim -9.94, p < .001$). 그러나 정서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보다 아동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t = 14.16 \sim 25.13, p < .001$).

2.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 간 상관관계의 차이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감독은 정서문제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아동 $r = -.21 \sim -.38$, 청소년 $r = -.12 \sim -.31, p < .001$) 반면 비밀관성은 정서문제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 $r = .05 \sim .16$, 청소년 $r = .07 \sim .22, p < .01$). 즉,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이거나 감독적으로 것으로 지각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이 적게 나타난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을 비밀관적인 것으로 지각한 아동과 청소년은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을 많이 나타내었다.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에 대해 Fisher의 *z* 값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은 애정적 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3.81 \sim -2.67, p < .05$). 또한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는 공격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만 아동과 청소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 = -2.78 \sim -1.50, p < .05$), 감독하는 양육태도는 신체증상을 제외한 공격성과

1) $r' = 0.5 * \log_e \{ \text{Abs}([1+r]/[1-r]) \}$

$Z = (r'_1 - r'_2) / \sqrt{1/(N_1 - 3) + 1/(N_2 - 3)}$

표 1.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의 평균 및 표준편차

	아동(N = 2,119)		청소년(N = 2,01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애정	1.65	.60	2.02	.55	-20.71***
감독	1.53	.58	1.91	.58	-21.12***
비일관성	2.61	.76	2.82	.62	-9.94***
공격성	3.32	.54	3.03	.53	17.67***
신체증상	3.34	.56	2.99	.53	20.96***
사회적 위축	3.07	.72	2.76	.69	14.16***
우울	3.53	.51	3.12	.56	25.13***

*** $p < .001$.

표 2.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 간 상관관계

아동 \ 청소년	1	2	3	4	5	6	7
1. 애정	-	.48***	-.29***	-.20***	-.23***	-.16***	-.31***
2. 감독	.52***	-	.02	-.16***	-.18***	-.12***	-.20***
3. 비일관성	-.03	-.10***	-	.22***	.21***	.07**	.21***
4. 공격성	-.29***	-.25***	.14***	-	.56***	.30***	.55***
5. 신체증상	-.30***	-.22***	.16***	.61***	-	.38***	.66***
6. 사회적 위축	-.27***	-.21***	.05*	.40***	.46***	-	.50***
7. 우울	-.38***	-.28***	.13***	.58***	.66***	.57***	-

주. 대각선 아래는 아동, 대각선 위는 청소년의 상관관계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정서문제 간 상관관계의 차이

	1	2	3	4	5	6	7
1. 애정							
2. 감독	1.83*						
3. 비일관성	8.46***	-2.52**					
4. 공격성	-3.25***	-3.01**	-2.22*				
5. 신체증상	-2.28*	-1.31	-1.50	2.05*			
6. 사회적 위축	-3.81***	-2.81**	-.36	3.73***	3.14***		
7. 우울	-2.67**	-2.73**	-2.78**	1.55	.40	3.17***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적 위축, 우울과의 관계에서 아동과 청소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3.01 \sim -2.73, p < .01$).

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애정과 감독, 비밀관성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상호작용항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이 값이 1.00~1.61로 나타나 Fisher & Mason(1981)의 기준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인으로 애정과 감독, 비밀관성을 투입한 모형 1에서 부모의 애정과 감독은 공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32 \sim -.09, p < .001$), 비밀관성은 공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5 \sim .16, p < .05$). 모형 2에서는 부모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공격성 13%($F = 50.43, df = 6, 2,112, p < .001$) 신체증상 13%($F = 50.15, df = 6, 2,112, p < .001$), 사회적 위축 9%($F = 36.17, df = 6, 2,112, p < .001$), 우울 18%($F = 50.15, df = 6, 2,112, p < .001$)을 설명하였다. 특히 모형 2에서는 부모의 애정과 감독이 공

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이며 동시에 감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할 경우 공격성($b = .14, t = 6.21, p < .001$)과 신체증상($b = .18, t = 10.02, p < .001$)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위축($b = -.19, t = -5.20, p < .001$)과 우울($b = -.23, t = -12.78, p < .001$)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감독과 비밀관성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독을 많이 하면서 비밀관적인 양육행동을 할 경우, 사회적 위축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b = .14, t = 4.05, p < .001$).

다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인으로 애정과 감독, 비밀관성을 투입한 모형 1에서 부모의 애정과 감독은 공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4 \sim -.06, p < .001$), 비밀관성은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4 \sim .18, p < .05$). 모형 2에서는 부모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공격성 8%($F = 31.48, df = 6, 2,101, p < .001$) 신체증상 9%($F = 35.60, df = 6, 2,101, p < .001$), 사회적 위축 4%($F = 14.56, df = 6, 2,112, p < .001$), 우울 13%($F = 50.10, df = 6, 2,101, p < .001$)을 설명하였다. 한편 모형 2에서는 부모의 애정과 감독이 공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아동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은 부모의 양

표 4.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N = 2,119)

	공격성						신체증상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애정	-.20	.02	-.22***	-.21	.02	-.23***	-.23	.02	-.25***	-.24	.02	-.25***
감독	-.13	.02	-.14***	-.16	.02	-.17***	-.09	.02	-.09***	-.12	.02	-.12***
비일관성	.10	.01	.14***	.10	.02	.14***	.11	.02	.16***	.12	.02	.16***
애정 × 감독				.12	.03	.10***				.09	.03	.07**
애정 × 비일관성				.01	.03	.01				.03	.03	.02
비일관성 × 감독				-.01	.03	.00				.00	.03	.00
R^2	.12			.13			.12			.13		
ΔR^2				.01						.01		
$F(df)$	93.36*** (3, 2,115)			50.43*** (6, 2,112)			95.46*** (3, 2,115)			50.15*** (6, 2,112)		

	사회적 위축						우울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애정	-.26	.03	-.22***	-.28	.03	-.23***	-.27	.02	-.32***	-.28	.02	-.33***
감독	-.12	.03	-.09***	-.16	.03	-.13***	-.10	.02	-.11***	-.12	.02	-.14***
비일관성	.05	.02	.05*	.06	.02	.06**	.08	.01	.12***	.09	.01	.13***
애정 × 감독				.15	.04	.09***				.08	.02	.07**
애정 × 비일관성				.00	.04	.00				.01	.03	.01
비일관성 × 감독				.10	.04	.06*				.05	.03	.05
R^2	.08			.09			.17			.18		
ΔR^2				.01						.01		
$F(df)$	61.49*** (3, 2,115)			36.17*** (6, 2,112)			95.46*** (3, 2,115)			50.15*** (6, 2,112)		

* $p < .05$. ** $p < .01$. *** $p < .001$.

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동시에 감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할수록 신체증상($b = -.09, t = -2.58, p < .01$), 사회적 위축($b = -.08, t = -2.17, p < .05$)과 우울($b = -.20, t =$

$-5.48, p < .001$)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일관성과 감독도 공격성과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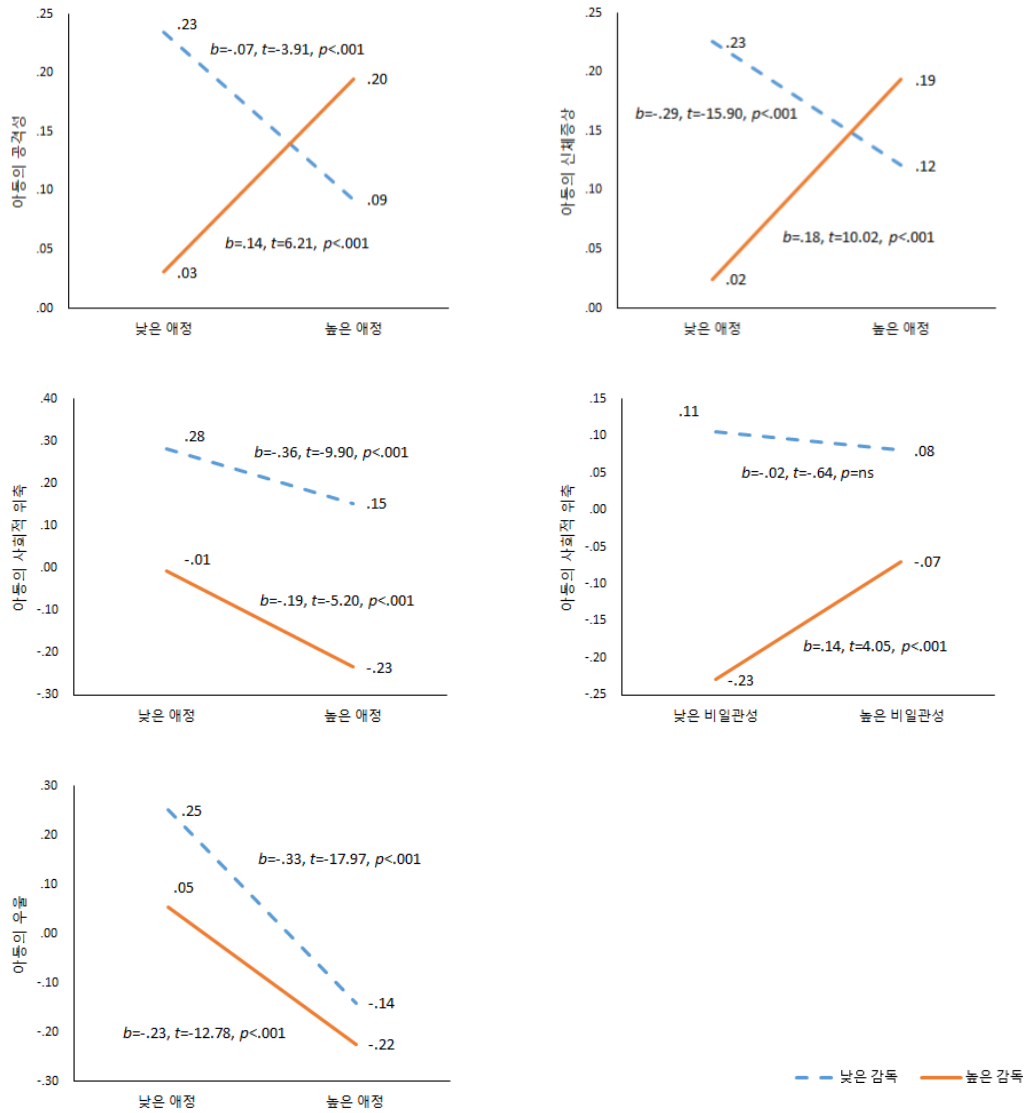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정서문제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감독, 애정과 비일관적 양육태도, 감독과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효과

양육태도를 비일관적으로 지각할수록 동시에 감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공격성($b = -.09, t = -2.53, p < .05$)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증상($b = .18, t = 5.07, p < .001$).과 사회적 위축($b = .12, t = 3.40, p < .001$). 우울($b = .19, t = 10.44, p < .001$).은 높게 나타났다.

표 5.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N = 2,108)

	공격성						신체증상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애정	-.10	.02	-.10***	-.10	.02	-.11***	-.14	.02	-.14***	-.14	.02	-.14***
감독	-.08	.02	-.09***	-.09	.02	-.10***	-.09	.02	-.10***	-.10	.02	-.11***
비일관성	.16	.02	.18***	.16	.02	.19***	.13	.02	.16***	.14	.02	.16***
애정×감독				.06	.03	.05*				.08	.03	.06**
애정×비일관성				-.04	.03	-.03				.05	.03	.04
비일관성×감독				.12	.03	.09***				.07	.03	.06*
R^2	.07			.08			.08			.09		
ΔR^2				.01						.01		
$F(df)$	56.32*** (3, 2,104)			31.48*** (6, 2,101)			63.42*** (3, 2,104)			35.60*** (6, 2,101)		
	사회적 위축						우울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애정	-.15	.03	-.12***	-.16	.03	-.12***	-.24	.02	-.24***	-.25	.02	-.24***
감독	-.07	.03	-.06**	-.09	.03	-.08**	-.07	.02	-.07**	-.08	.02	-.08***
비일관성	.03	.03	.02	.03	.03	.03	.12	.02	.14***	.13	.02	.14***
애정×감독				.13	.04	.08***				.08	.03	.06**
애정×비일관성				-.03	.04	-.02				.00	.03	.00
비일관성×감독				.16	.04	.09***				.11	.03	.08**
R^2	.03			.04			.12			.13		
ΔR^2				.01						.01		
$F(df)$	19.93*** (3, 2,104)			14.56*** (6, 2,101)			92.60*** (3, 2,104)			50.10*** (6, 2,10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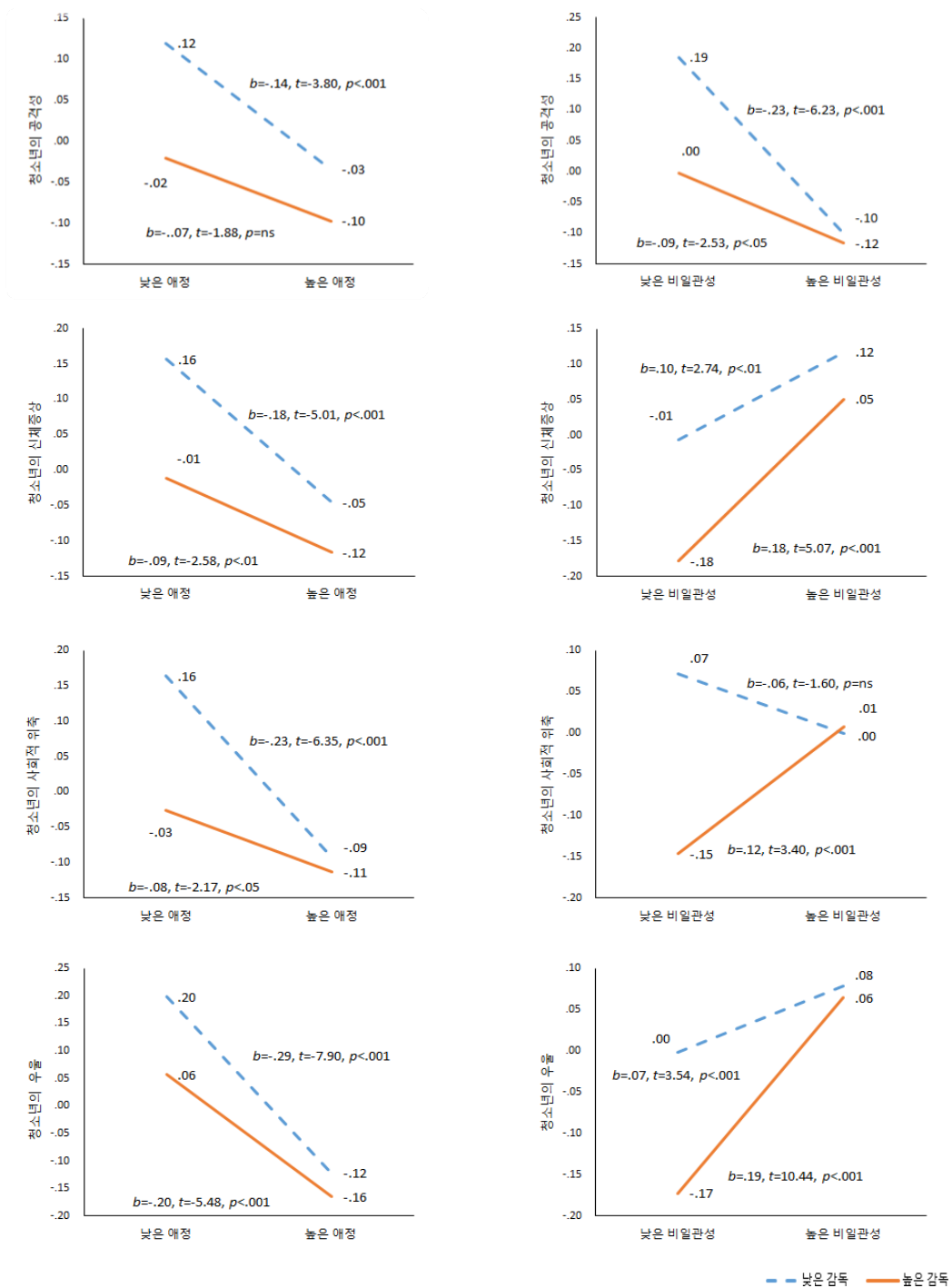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감독, 애정과 비일관적 양육태도, 감독과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애정, 감독, 비밀관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주효과뿐 아니라 애정과 감독이 가지는 상호작용효과, 비밀관성과 감독이 가지는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이러한 양육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정서문제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과 정서문제를 비교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 감독, 비밀관성이 아동이 지각한 그것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정서문제는 모두 아동이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청소년은 아동보다 부모를 더 애정적이고, 더 감독을 많이 하고, 더 비밀관적이라고 지각하며, 자신의 정서문제에 대해서는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이 모두 아동보다 낮다고 지각한 것이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다른 결과로, 아동과 청소년기의 발달적 경험에 대한 두 가지 이슈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는 과거보다 빨라진 사춘기의 시작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고1에 해당하는 청소년 후기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은 아동기에 비해 객관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달적 차이가 갖는 함의를 본 연구 분석결과와 다른 부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부모의 애정, 감독, 비밀관성은 아동

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상관의 방향은 일관된 편으로, 애정과 감독이 높으면 정서문제가 적고, 비밀관적 양육이 높으면 정서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애정이 불안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고(김정은, 박희현, 2011; Niditch & Varela, 2012), 문제행동(Bacchini, Miranda & Affuso, 2011)과 우울(박정현, 이미숙, 2014)을 감소시키고, 비밀관적 양육행동이 정서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선행연구(박희현 등, 2014; 배성만, 201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집단의 상관관계의 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대부분의 상관계수는 아동집단이 청소년집단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문제와의 상관이 청소년 집단보다 더 큰 것이다. 성장과 더불어 부모 외 다른 대인관계 및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더 받는 아동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셋째, 애정, 감독, 비밀관성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애정과 감독, 감독과 비밀관성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애정도 감독의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변수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아동의 경우, 감독수준이 낮을 경우 애정이 높을수록 공격성과 신체증상이 낮아지지만, 감독수준이 높을 경우 애정이 높을수록

공격성과 신체증상이 높아진다. 반면 사회적 위축과 우울 대해서는 애정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낮아지는 경향이 감독수준이 높은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감독과 정서문제의 부적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감독을 독립적으로 고려했을 때와 달리 애정과 상호작용효과가 일어날 경우 그 효과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감독수준이 높고 애정적일수록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정서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교 중심적인 생활과 부모, 교사, 사회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과 사춘기 진입직전의 발달단계에서 부모의 감독을 간섭과 통제로 받아들여 감독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인지적인 발달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감독을 애정적인 돌봄의 일환으로 지각함에 따라 감독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비밀관성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인 감독과 상호작용효과를 일으킨다고 해도, 아동의 사회적 위축, 청소년의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정서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애정과 감독, 심리통제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 비밀관적 면모를 포함하는 부정적 양육인 심리통제가 강할 경우 긍정적 양육인 애정의 효과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Aunola & Nurmi, 2005)의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비밀관성의 부정적 영향의 위

험성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 감독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비밀관성이 높을 때 공격성이 감소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다른 정서문제와 달리 공격성은 외현화된 문제로, 감독이 행동적인 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상기한 감독과 애정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감독의 효과가 아동기와 비교해 청소년기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발달적 특성상 청소년기의 경우 부모의 감독이 정서문제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아동의 정서문제에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은 애정이며 비밀관성과 감독의 상대적 영향력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는 비밀관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특히 공격성과 신체증상의 경우 비밀관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달적인 차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부모의 어떠한 양육의 측면으로부터 더 취약한지,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이 정서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양육의 요소 중 특히 어떤 부분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는 애정, 감독, 비밀관성과 정서문제의 상관관계가 아동과 청소년집단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힌 연구문제 2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상관관계의 차이검증에서 아동과 청소년집단의 정서문제는 각기 다른 정도로 부모의 다양한 양육의 요소와 상관이 있으며, 양육의 세 요소들 간의 관계도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점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애정, 감독, 비밀관성이 각각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에 미치는 주효과를 밝혔을 뿐 아니라 이러한 독립적인 효과에서 나아가 양육의 각 요소가 동시에 고려될 때 갖는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주효과와 다른 방향으로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는 부모의 양육의 한 요소가 미치는 독립적 영향에서 나아가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부가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의 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힌 점,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비밀관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힌 점은 각종 다양한 정서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담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2), 1-17.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 사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도영 (2013). 부모감독과 문제행동 관계에서 청소년 활동과 교사 애착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6), 315-336.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결실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1), 9-38.
- 김은주 (2015). 초등학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인터넷 게임중독이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 *초등교육연구*, 28(3), 95-122.
- 김재엽, 정윤경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정은, 박희현 (2011). 직업군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과 자기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8(4), 79-99.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태도, 정서문제, 정준상관분석.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 김희화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모 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53.
- 나유미, 임연진 (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

- 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4(3), 87~98.
- 모상현, 김형주, 이선영, 김정화, 윤경민 (201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38.
- 박광숙, 이영희, 고성희 (201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춘기 체험. 질적연구, 13(2), 79-91.
- 박정현, 이미숙 (2014).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45-63.
- 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3), 345-362.
- 배성만 (2014).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 만족도 휴대폰 중독 사용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 21(11), 271-290
-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1-187.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유성경 (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01~217.
- 윤명숙, 이재경 (2010).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26(2), 69-92.
- 이웅택, 이은경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55-70.
- 이주리 (2010). 한 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관계: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23-130.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부모감독, 학교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우울, 공격성.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1), 33-61.
- 정은선, 조한익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정아 (2009).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경향과

- 개인차에 대한 성별 · 부모 · 또래 · 교사 요인 검증. *청소년연구*, 20(3), 167-192.
- 한국심리학회 (2014). *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심리학회.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지*, 12(2), 170-189
- Achenbach, T. M. (1991). *Childhood Behavior Checklist*.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Burlington, VT.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 Aunola, K., & Nurmi, J.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 1144-1159.
- Bacchini, D., Miranda, M. C., & Affuso, G., (2011).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on antisocial behavior and anxiety/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26(2), 269-929.
- Chiles, J. A., Miller, M. N., & Cox, G. B. (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7(10), 1179-1184.
- Craighead, W. E. (1991). Cognitive factors and classification issu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311-326.
- Feinberg, M. E., Howe, G. W., Reiss, D., & Hetherington, E. M., (2000).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differences of parenting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4), 531-555.
- Fisher, J. C., & Mason, R. L. (1981). The analysis of multicollinear data in criminology. In J. A. Fox (Ed.), *Methods in quantitative criminology* (pp. 99-125). New York, NY: Academic Press.
- Fletcher, A. C., Darling, N., & Steinberg, L. (1995).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J. McCord(Ed.), *Coercion and punishment in long-term perspectives* (pp. 259-271).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lagher, B., & Cartwright-Hatton, S.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factors and trait anxiety: Mediating role of cognitive errors and meta-cogni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4), 722-733.
- Geldard, K., & Geldard, D. (1999). *Counselling adolescents: A pro-active approach*. London: SAGE Publications.
- Hibbard, D. R., & Walton, G. E. (2014).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and gende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2(2), 269-278.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 Lenhard, W., & Lenhard, A. (2014). Hypothesis

- tests for comparing correlations. Retrieved April 31, 2016, from <http://www.psychometrica.de/correlation.html>. Bibergau (Germany): Psychometrica.
- Niditch, L. A., & Varela, R. E. (2012). Perceptions of parenting, emotional self-efficacy, and anxiety in youth: test of a mediational model. *Child & Youth Care Forum*, 41(1), 21~35.
- Reid, J. B., & Patterson, G. R. (1989).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ur pattern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2), 107-119.
- Shaffer, D. R., & Katherine, K. (201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Belmont, CA: Cengage Learning.
- Show, D. S., Gilliom, M., Ingoldsby, E. M., & Nagin, D. S. (2003). Trajectories leading to school-age conduct problem.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189-200.
- 1 차원고접수 : 2016. 07. 11.
수정원고접수 : 2016. 08. 16.
최종게재결정 : 2016. 09. 02.

Effects of Affection, Monitoring and Inconsistent Parenting on the Emotional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Lee, Eun Gyoung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Han, Sae-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emotional problem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data of 4th wave were used to analyze 2,119 of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and 2,108 of 1st graders in high schoo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om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When children perceived higher affection and monitoring from parents, then they show higher aggression and physical problems. Adolescents, in contrast, who perceived higher affection and monitoring from their parents, their emotional problems appeared in lower level. Interestingly, when adolescents perceived that higher inconsistent parenting and monitoring at the same time, then their emotional problems are also turned out to be higher.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of interaction effects were discussed.

Keywords: affection, monitoring, inconsistent parenting, emotional problem